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헌하¹⁾, 김남희²⁾

Factors affecting the behavior treating the elderly

Hun-Ha Cho¹⁾, Nam-Hee Kim²⁾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B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2개 간호학과 2, 3, 4학년 학생 266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학년,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 태도의 차이는 알고 지내는 노인 여부,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에서, 행동의 차이는 알고 지내는 노인 여부,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사회적 지식은 신체생리적 지식, 심리적 지식과 태도는 심리적 지식, 가족 사회적 지식과 행동은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태도로 나타났으며 31%를 설명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을 간호할 간호사의 역할이 점점 강조될 것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노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노인, 지식, 태도, 행동,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elderly and factors affecting the behavior treating the elderly. 266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0.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s tes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 score of 0.57 out of 1 for the level of knowledge, a score of 2.69 out of 4 on the attitude, and 3.6 points on a 4 points on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 social knowledge and physiological knowledge, psychological knowledge, between attitude and psychological knowledge, family social knowledge,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Attitude explained 31% of the variance in behavior. With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because the emphasis of getting the role of nurses to care for the elderly,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provide a variety of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elderly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Received (April 27, 2016), Review Result (May 11, 2016)

Accepted (May 18, 2016), Published (July 31, 2016)

¹602-703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262 Gamcheon-ro, Seo-gu, Busan Korea.

email: hhuna@kosin.ac.kr

²(Corresponding Author) 47340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no, Busanjin-gu, Busan, Korea

email: namheek@deu.ac.kr

Key Words: Elderly, Knowledge, Attitude, Behavior,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2012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1.8%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들은 오래 사는 만큼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퇴행성질환이나 신체 기능 저하 등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노인을 돌보는 가정은 부양부담으로 인하여 가족의 위기감이 초래되며[2], 국가적으로는 노년부양비가 2014년 17.3%, 2030년 38.6%, 2050년에는 71.0%로 예상하고 있다[1]. 이와 같은 노인부양부담과 노년부양비 증가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 등을 가지게 한다[3]. 또한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대부분 만성질환이라 치료보다는 장기요양이나 관리 등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4]. 따라서 앞으로 노인전문병원 및 지역사회 여러 보건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5], 노인관련 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될 것이며 특히 다른 분야의 인력보다도 간호사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는 실제 의료기관 및 현장에서 노인환자와 그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간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간호제공자인 간호사는 환자가 최상의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특히 노인에 대한 편견과 지식의 결여는 노인간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따라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의미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7].

이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공통된 욕구를 인식하고 노인을 이해하는 지식과 태도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의 강조되고 있으나 노인들의 실제 지위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즉 인구사회학적 측면의 뚜렷한 변화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노인 차별주의로 알려진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8].

노인보건의료에 있어서 전문적인 간호실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노인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 습득과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9], 노인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Courtney 등(2000)[11]은 노인에 대한 간호사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이 받는 간호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태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설명하였다. 현재 대학생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청·장년층을 형성하여 고령화 사회 핵심 구성원으로서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는 세대가 될 것이므로 이들의 노인 부양 의식,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인을 대하는 행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12].

인간의 행동은 부모로부터 관찰가능한 신체적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나 인지과정같은 정신적 행동까지 포함하며 행동은 태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태도와의 관계를 통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13]. 간호학생이 노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는 교육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일 수 있으며[14], 이것은 간호학생이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15], 간호사가 되어 노인간호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간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인간호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간호대상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 질 높은 간호의 기본이라고 할 때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노인간호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2개 간호학과의 간호대학생 2, 3, 4학년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총 30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Cohen의 검정력 분석을 근거로 G power 3.1.3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 예측변수 13개로 산정한 결과 131명의 표본수가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 수 300명은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5월 0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2개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구두 허락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에 대해 본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후에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고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다.

총 300부의 자료를 배부하였고, 그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6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 측정도구는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편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lmore(1998년)[6]에 의해 수정, 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 on Aging Quiz(Part-1:FAQ-1)를 이춘자(2003)[16]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5문항으로 노인의 신체-생리적(11문항), 심리적(6문항), 가족사회적(8문항) 측면에 대한 내용으로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부여는 문항별 정답 1점, 오답과 모르겠다 0점으로 지식정도 총점은 0-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12$ 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67$ 이었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이춘자(2003)[16]가 사용한 도구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노인의 성격특성 8문항, 노인의 정서적 특성 7문항, 노인의 가족관계 3문항, 노인의 신체적 특성 4문항, 노인의 자기관리 능력 3문항, 노인의 판단 능력 2문항, 노인의 사고방식 특성 3문항의 총 30문항을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72$ 였고, 본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3$ 이었다.

3) 노인에 대한 행동

노인에 대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원영희(2004)[17]가 개발한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17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들은 개인이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답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를 역코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7점 가장 부정적인 행동에서 68점 가장 긍정적인 행동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22$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74$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Scheffé 다중비교검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3)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4)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차이

연구대상자는 여학생이 250명(94.0%)으로 남학생보다 많았고, 2학년 63명(23.7%), 3학년 85명(32.0%), 4학년 118명(44.4%)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159명(59.8%), (외)조부 생존 여부는 있다가 211명(79.3%), 고향은 특별시, 광역시가 177명(66.5%)으로 가장 많았다. 조부모님과 산경험은 살아본 경험 없다가 126명(47.4%), 알고 지내는 노인 있다가 142명(53.4%)이었으며,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가 139명(52.3%), 노인대상 자원봉사 경험을 한적이 있다가 222명(83.5%)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학년($F=4.177$, $p=.016$),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t=2.413$, $p=.01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알고 지내는 노인 여부($t=2.641$, $p=.009$),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에($t=2.172$, $p=.031$)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는 알고 지내는 노인 여부($t=1.960$, $p=.050$),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t=2.006$, $p=.04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표 1]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차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 & Behavior of Elderly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66)

Characteristics	Division	N(%)	Knowledge		Attitude		Behavior	
			Mean ±SD	F or t(p) Scheffé test	Mean ±SD	F or t(p) Scheffé test	Mean ±SD	F or t(p) Scheffé test
Sex	Female	250(94.0)	.57 ± .10	-1.203	3.36(.39)	.318	3.05(.37)	1.773
	Male	16(6.0)	.60 ± .08	(.230)	3.33(.26)	(.751)	3.12(.31)	(.440)
Grade	Seconda	63(23.7)	.58 ± .07	4.177 (.016)	3.34(.39)	.566 (.568)	3.08(.31)	.429 (.652)
	Thirdb	85(32.0)	.56 ± .07		3.35(.37)		3.03(.41)	
	Forthc	118(44.4)	.59 ± .08		3.36(.38)		3.07(.37)	
Religion	Yes	107(40.2)	.56 ± .10	-1.022	3.36(.38)	.182	3.07(.34)	.523
	No	159(59.8)	.58 ± .10	(.308)	3.35(.38)	(.856)	3.05(.39)	(.602)
Whether grandparents alive	Yes	211(79.3)	.57(.10)	-.380 (.705)	3.37(.39)	1.112 (.267)	3.07(.36)	1.241 (.216)
	No	55(20.7)	.58(.11)		3.31(.33)		3.00(.38)	
Hometown	Metropolitan	177(66.5)	.58(.10)	2.284 (.104)	3.37(.39)	.477 (.621)	3.05(.37)	.117 (.890)
	City	76(28.6)	.56(.11)		3.33(.36)		3.07(.37)	
	County, town	13(4.9)	.54(.10)		3.32(.35)		3.07(.32)	
Live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Experience living in the past	115(43.2)	.56(.11)	1.978 (.140)	3.38(.39)	1.484 (.229)	3.08(.35)	.995 (.371)
	Live together	25(9.4)	.60(.09)		3.44(.44)		3.09(.35)	
	No live experience	126(47.4)	.58(.09)		3.32(.35)		3.02(.38)	
By getting to know the elderly	Yes	142(53.4)	.57(.10)	-.874 (.383)	3.42(.37)	2.641 (.009)	3.10(.35)	1.960 (.050)
	No	124(46.6)	.58(.10)		3.29(.38)		3.01(.38)	
Elderly-related training	Yes	139(52.3)	.59(.08)	2.413	3.41(.40)	2.172	3.10(.03)	2.006
	No	127(47.7)	.56(.08)	(.017)	3.31(.35)	(.031)	3.01(.03)	(.047)
Target elderly Volunteer	Yes	222(83.5)	.57±.10	-1.662 (.098)	3.36±.38	.582 (.561)	3.07±.36	1.156 (.249)
	No	44(16.5)	.59±.09		3.33±.38		3.00±.41	

3.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1점 만점에 .57점이었고 하부영역별로 신체적 지식 .79점, 심리적 지식 .48점, 가족사회적 지식 .42점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4점 만점에 2.69점으로 나타났고, 노인에 대한 행동 점수는 평균 4점 만점에 3.0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Table 2] Knowledge, Attitude & Behavior of Elderly (N=266)

Variables	Mean ± SD	Minimum	Maximum	Range
Knowledge	.57±.10	.32	.80	.48
physical knowledge	.79±.12	.36	1.00	.64
psychological knowledge	.48±.20	.00	1.00	1.00
family social knowledge	.42±.16	.13	.88	.75
Attitudes	2.69±.38	1.86	3.74	1.88
Behavior	3.06±.37	1.82	3.94	2.12

3.3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간의 상관관계

가족사회적 지식은 신체생리적 지식($r=.164, p=.007$), 심리적 지식($r=.22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태도는 심리적 지식($r=.313, p<.001$), 가족사회적 지식($r=.22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행동은 태도($r=.559,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표 3]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N=266)

Category	Physical knowledge	Psychological knowledge	Family social knowledge	Attitude
	r(p)			
Psychological knowledge	.065(.292)	1		
Family social knowledge	.164(.007)	.225(<.001)	1	
Attitude	.053(.392)	.313(<.001)	.224(<.001)	1
Behavior	-.004(.946)	.083(.175)	.022(.723)	.559(<.001)

3.4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태도 및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알고 지내는 노인 유무와 노인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를 회귀분석 식에 투입한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정, 잔차도표에서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이 1.890으로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가 .960-.980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21-1.042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태도($\beta=.414, p<.001$)로 나타났으며, 행동을 31% 설명하였다(Table 4).

[표 4]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Affecting the Behavior of Elderly						(N=266)
Variables	B	SE	β	t(p)	Adj R ²	F(p)
Attitude	.534	.051	.548	10.512 (<.001)	.308	40.315 (<.001)

4. 논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1점 만점에 .57점으로 나타나 노인 관련 교과목에서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가족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69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본연구와 같은 원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귀분 등(2007)[18]의 연구에서의 4점 만점의 2.7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알고 지내는 노인 여부와 노인관련 교과목 수강한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아기(2013)[19]의 연구에서도 노인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 결과와 같았다. 교육을 통한 인지과정의 변화가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관련 교육이나 실습 등이 학생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알고 지내는 노인이 있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 김명희(2011)[20]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과의 접촉과 경험의 질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자원봉사가 아닌 의미 있는 노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밖에 노인관련 특성 중 현재 및 과거 노인과 동거여부와 자원봉사활동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희(2011)[2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Erdemir 등(2011)[21]의 연구에서 노인과 함께 산 경험이 있는 경우 태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노인에 대한 행동 점수는 3.06점으로 나타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희(2011)[20]의 연구에서의 3.38점보다는 낮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현정(2006)[22]의 연구에서 2.39점, 최성숙(2007)[23]의 연구에서의 1.69점, 김선주(2014)[24]의 연구에서 2.03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과 학생보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교과과정 중에 노인간호학 과목이 있거나 임상실습에서 직접 노인환자를 대하는 기회가 많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태도는 심리적 지식, 가족사회적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행동은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은자와 강익화(2006)[25]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양야기(2013)[19], 김귀분 등(2007)[18]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정화 등(2011)[26]의 연구에서는 심리영역의 지식과 태도, 태도와 행동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희(2011)[20]의 연구에서는 총지식과 태도, 총지식과 행동, 태도와 행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선주(2014)[24], 강현정(2006)[22]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태도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성숙(2007)[23]의 연구에서는 태도와 행동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고, 이정화 등(2011)[26]의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노인에 태도가 긍정정일수록 노인을 대하는 행동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노인교육을 물론이고 노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인 환자의 간호만족도 및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2 the aged statistics. accessed online on March 2013 a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260367, Statistics Korea. (2011). 2011 elderly statistics. Retrieved Feb. 20, 2013, from <http://kostat.go.kr>
- [2] S. H. Lee, Caregivers' Burden of the Family for Elder In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2008). KeimyungUniversity
- [3] Amirkhanyan, A. A., and Wolf, D. A, Caregiver stress and noncaregiver stress: Exploring the pathways of psychiatric morbidity. The Gerontologis (2003), Vol.43, No.6, pp817-827.
- [4] S. J. Yu, S. M. Kim, Y. J. Lee, and Y. H. Park, Factors Influencing Burden in Primary Caregivers of Elderly Stroke Patients in Oriental Medicin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04), Vol.6, No.1, pp7-18.
- [5] S. Y. Kim, K. M. Yang, H. E. Oh, and J. S. Kim,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02), Vol.22, No.3, pp21-36.
- [6] E. B. Palmore, "The facts on aging quiz"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8).
- [7] Angel Chu Kee Lee, Alisa Ka Po Wong, and Edith Kwok Yuen Loh, Score in the Palmore's Aging Quiz, knowledge of community resources and working prefere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in Hong Kong. Nurse Education Today. (2006), Vol.26, Issue4, pp269 - 276.
- [8] H. W. Lee, The awareness of aging and attitudes toward the aged among Korean and Japanese social worker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2001), Vol.46, No.9, pp377-403.

- [9] J. R. Han, A study on college students in our country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aging. *Yonsei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2000), Vol.13, No.1, pp191-206.
- [10] K. H. Lee, study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needs of hospital nurses. (2005) Yonsei University
- [11] Courtney, M., Ting, S., and Walsh, A Acute-care nurses'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00), Vol.6, No.2, pp62-69.
- [12] M. G. Park, Relationship of women' college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toward elderlies and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Pusan Women's College Journal*. (2009). Vol.31, pp263-277.
- [13] H. K. Lee. *Social Psychology*. Seoul: Bobmunsa. (2001)
- [14] Isabella M and Frederic M, Attitudes towards hospitalized older adul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4), Vol.47, No.4, pp446-453.
- [15] Mckinlay, A and Cowan, S, Student nurses' attitudes towards working with older pat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3). Vol.43, No.3, pp298-309.
- [16] C. J. Lee,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Old Adult General Hospital and Geriatric Hospital (2003) Hallym University.
- [17] Y. H. Won, Development of Scale of the Elderly. Unpublished. (2004)
- [18] K. B. Kim, J. B. Lim, and S. H. Sok,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es Towar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7), Vol.13, No.1, pp.13-21.
- [19] Y. K. Yang, A study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 Vol.19 No.4, pp498-507.
- [20] M. H. Kim,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1), Vol.5, No.4, pp.113-126.
- [21] Erdemir, F., Kav, S., Citak, E. A., Hanoglu, Z., & Karahan, A. (2011). A Turkish version of Kogan's attitude toward older people(KAOP)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52, pp162-e165. <http://www.elsevier.com>
- [22] H. K. Kang, A Study on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in Busa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2006), Vol.6, No.3, pp219-225.
- [23] S. S. Choi, A Study on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in Gyeong-Ju.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2007), Vol.7, No.2, pp59-64.
- [24] S. J. Kim, A study on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2014), Vol.2, No.2, pp9-17.
- [25] E. J. Lee, and I. W. Kang, Student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6), Vol.20, No.2, pp183-194.
- [26] J. H. Lee, E. J. Park, and J. M. Choi, A study on the knowledges, attitudes and behaviors of some university students about the ol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1), Vol.11, No.2, pp233-242.